

독서 통한 소통과 창조력이 기업 경쟁력

금년 들어 독서경영 도입 붐 '책 읽는 CEO', 독서클럽 등 확산



산업경제연구원 내 전문프로그램 MBS, '책 읽는 CEO' 등이 모이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 독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책을 통해 불황을 극복할 지혜를 배우고 지적 자산을 업무에 활용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독서경영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언론에 '독서경영'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지난 2002년이었다. 김종창 기업은행장이 《유머보따리》라는 책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비매품인 이 책에는 그동안 기업은행 직원들이 사내 통신망에 올린 글과 인터넷 성인유머, 풍자, 윗트가 담겨 있다. 언론은 독서경영 자체보다는 '파격'이라는 의미에서 독서경영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이후 '독서경영'이라는 단어는 경제신문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독서경영'은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책을 돌리는 '이벤트' 수준이었다.

본격적으로 독서경영이 기업에 소개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연구원 내 전문프로그램 MBS(Management Book Society : 경영자 독서 모임)가 소개되면서 '책 읽는 CEO' 등이 언론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 주도로 1995년에 발족한 이 모임은 그동안 6개월에 걸쳐 한 주

에 한 권씩 스무 권을 떼야 한 기수가 끝나는 빠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가까운 재수강률을 기록하는 등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태 국민은행장, 백낙환 인제대 백병원 이사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초창기 회원을 비롯해 정재계 알 만한 인물이 이곳에서 강의 듣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른 경영자들도 '독서의 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경제지가 아니라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독서경영이 본격 소개되기 시작했다. 'CEO책꽂이' (세계일보), '독서경영 현장을 가다' (조선일보)라는 고경칼럼을 통해 우림건설,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준오헤어, 해찬들, 삼성카드, 서울보증보험, 동양기전, CJ주식회사, 리바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독서경영의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독서경영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유행' 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한양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센터장 유명만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한동안 독서경영이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강력한 방법론으로 각광을 받다가 학습조직이 퇴조하면서 독서경영도 잠시 관심과 열기가 식다가 최근 다시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며 "단순히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얻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야말로 값진 지식이며,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활발한 노력이 전개될 때 지식경영의 꽃이 만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동섭 기자